우암학원 창학7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全南日報

제10073호 2024년 9월 3일 화요일 음력 8월 1일

somic
서울디엠씨
아파트·타운하우스 개발 사업

국회 찾은 광주 "새로운 지방분권시대 이끈다"

전국 최초 '국회, 광주의 날' 개최
내년 지방자치 30년 앞두고 기획
민주·국힘·조국당 등과 정책 협약
지방정부·국회·정당 간 협력 구축
姜 "통합 돌봄 등 표준정책 제시"

지방정부-국회-정당 간 협력 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지방분권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광주시는 2일 서울 국회에서 '국회, 광주의 날' 개막식을 열었다. 국회에서 '지자체의 날'이 개최된 것은 전국 최초다. 이 행사는 3일까지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된다.

'국회, 광주의 날'은 2025년 지방자치시대 30년을 맞아 한층 업그레이드된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정부-국회-정당 간 새로운 협력 시스템을 마련,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고자 기획됐다.

지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따른 지역소멸,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로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사업의 우선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를 모티브로 광주가 대한민국 변화의 실험무대(테스트베드)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날 개막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양부남·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균택·민형배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막식이 끝난 뒤 국회에 마련된 정책전시·홍보관을 둘러보고 캐스퍼 전기차(EV) 전시장을 함께 살펴봤다. 이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캐스퍼 전기차 전시장을 깜짝 방문해 '국회, 광주의 날'을 응원하고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성공을 기원했다.

강 시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주가 이제는 광주다움통합돌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초등생학부모 10시출근제 등 좋은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에 정책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광주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해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정책협약, 팀광주 의원 위촉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대한민국 표준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의 손을 맞잡고 함께 커 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날 민주당·조국혁신당과 정책협약, 국민의힘과 정책전달식을 통해 지방정부-국회-정당의 새로운 협력 시스템을 마련했다. 먼저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책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 회복과 사회경제적 기본권 실현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에너지분권 실현을 위한 분산에너지 도시 조성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돌봄+의료+생활' 통합 모델 구축 △주거 및 교통 기본권 실현을 위한 지방특화형 모델 구축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도시형 특화모델 발굴 및 확산 등이다.

광주시-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 미래 번영과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광주시와 조국혁신당은 4개 분야 정책공조 협약을 맺었다. 주된 협약 내용은 △사회권으로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방특화형 주거정책 구축 △더 나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돌봄+의료+생활' 통합모델 구축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역 맞춤형 분산에너지 산업 육성 △일하는 모두를 위한 노동환경 개선 협력 강화 등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는 국가 핵심 현안에 대한 상호협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책전달식을 가졌다. 정책전달식에는 국가 핵심 현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으면서 상호 정책 방향성이 일치하는 △기후테크산업 △의료·돌봄 △맞춤형 주거 △지방재정 분권의 4대 분야 정책 협력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날 전방위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팀광주 국회의원' 위촉식도 열렸다. '팀광주 국회의원'은 제2 지역국회의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광주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에 나선다. ▶관련기사 3면 노병하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의 날' 개막식에서 박균택·전진숙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책전시·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제22대 국회 지각 개원식… 윤 대통령 불참

우원식 "사회적 대화로 의료 해법을"
내일부터 교섭단체 연설·대정부 질문

제22대 국회 개원식이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역대 최장인 95일 만의 늑장 개원이다.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7월 16일) 보다 더 늦게 열렸다.

이날 국회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 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건 1987년 체제 후 처음있는 일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성과를 낼 수 없다"며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 진전된 자세를 보여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개원식을 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우 의장은 "개원식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존립 근거가 헌법과 국민 국익에 있다는 것을 되새기고 다짐하는 자리"라며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는 동시에 오늘 개원식이 22대 국회 첫 3개월을 돌아보고 각오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을 하는 게 정치"라며 "국회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곳이 어디인지 국회가 발딛고 설 곳이 어디인지 근원적인 성찰을 요구받고 있다. 이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 갈등 속 의료 대란 사태가 장기화하는 데 대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일인데 국민이 겪는 현실은 의사 없는 병원"이라며 "정부는 더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현실 감각부터 의료 현장과 국민에 맞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여야 정당의 대표들이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 여야 정당, 의료관계인, 환자와 피해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작심하고 해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국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5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며, 10월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열린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예산과 법안 심사가 진행된다. 서울=김선욱 기자